



[마켓] KB금융 '3조' 클럽 가입·1위 탈환 10



Life

[설 선물] 올 선물 트렌드는 '가심비'·'간편식' 12~15



# 30년만의 올림픽, 평창의 '기적'이 시작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평화' 주제로 올림픽 시작 알려 성화 점화방식·점화자 당일 공개

총 17일간 15개 종목 144명 출전 지난 올림픽보다 2배↑ 최대규모 금 8·은 4·동 8, 종합 4위 목표

전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9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한국 선수들은 흠에서 펼쳐지는 17일간의 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린다.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는 15개 종목에 306개 메달이 걸려있다. 참가국, 참가선수 규모도 역대 최대다. 92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는 이미 올림픽 열기로 뜨겁다. 선수촌 입촌을 마치고 훈련에 매진 중인 선수들은 평창올림픽의 시설, 식사에 대해 연일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8일 열린 사전경기에서는 기분 좋은 승전보가 울렸다. 평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종목에 입성한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에서는 장혜지-이기정 조가 대한민국의 첫 승을 안겼다.

### ◆평창에서 '평화'를...개막식 기대

평창올림픽은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의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의 주제는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다. 개막식을 총괄한 양정웅 감독은 강원도의 다섯 아이가 평화의 답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밝혔다.

한편의 '겨울



1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 북한 선수단의 공식 입촌식이 열린 8일,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마스크트인 수호랑과 손잡고 추치고 있다. 3 8일 오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예선 1차전 한국 대 핀란드 경기에서 한국 이기정이 브룸으로 스윙하고 있다. 4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휴식일인 8일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을 찾아 오토마크 조형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화' 같은 개막식이 기대되는 가운데, 공연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된다. 한국 무용, 태권도 등을 이용한 공연은 물론 하현우, 볼빨간 사춘기, 전인권 등이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를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과의 결합은 개막식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특히 경기장이 아닌 행사전용시설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것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알려져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초미의 관심사인 성화 최종 점화자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는 평창올림픽 점화대에서 화려한 불꽃을 피울 예정이다.

성화 점화 방식과 점화자는 개막식 최대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역대 올림픽에서도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로

이터 통신이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으나, 기대감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최종 점화자로 유력한 인물은 '피겨 여제' 김연아(은퇴)다. 역대 동계올림픽 성화의 점화자는 개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맡아왔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김연아를 빼놓고 생각하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김연아의 단독 점화 대신 북한의 상징적 인물과 공동 점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회가 첫 남북 단일팀이 성사된 '평화 올림픽'이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이미 성화 점화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의 단독 점화일지, 남북 공동 점화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나올 확률도 있기에 개막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 ◆한국 국가대표, 주요 경기 일정은?

한국은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종합 4위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3위에 올랐으나, 이번 대회는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역대 최고의 성적을 쓰기에 좋은 기회다.

역대 한국이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올림픽 역시 한국에서 열린 1988년 서울올림픽(종합 4위)이었다. 개최국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가 출전한다는 점도 최고 성적 달성에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 이는 2010 밴쿠버 올림픽(5종목, 46명)의 3배, 2014 소치 올림픽(6종목, 71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메달 효자 종목을 비롯해 비인기 종목까지 경기를 놓쳐선 안 되는 이유다.

9일 첫 날에는 오전 8시 35분과 오후 1시 35분에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3, 4차전이 열리며,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45분에는 프리스타일스키(에이리얼) 여자모굴과 남자모굴 예선이 각각 열린다.

한국에서 '인기종목'으로 거듭난 피겨스케이팅 경기도 열린다. 오전 10시엔 팀이벤트 남자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차준환이 출전하고, 오전 11시 45분에는 페어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 김규은-감강찬 조가 나선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오는 10일 9시 10분부터 강원도 강릉의 관동하키센터에서 스위스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밖에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키점프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 일정은 평창올림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그 포문이 열린다. 이제 한국은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8번째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남은 것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뿐이다. 평창에서 펼쳐질 기적에 눈과 귀가 쏠린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